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토론회



20210305 금 14:00 온라인

주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STOP 공동행동

| 사회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 경계선에서 :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 동향 p.3
↳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p.17
: 코로나 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p.30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p.42
- 하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p.46
-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p.50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p.55

| 자유 토론

다함께

경계선에서
: 코로나 이후 여성 노동 동향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경계선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여성 노동 동향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202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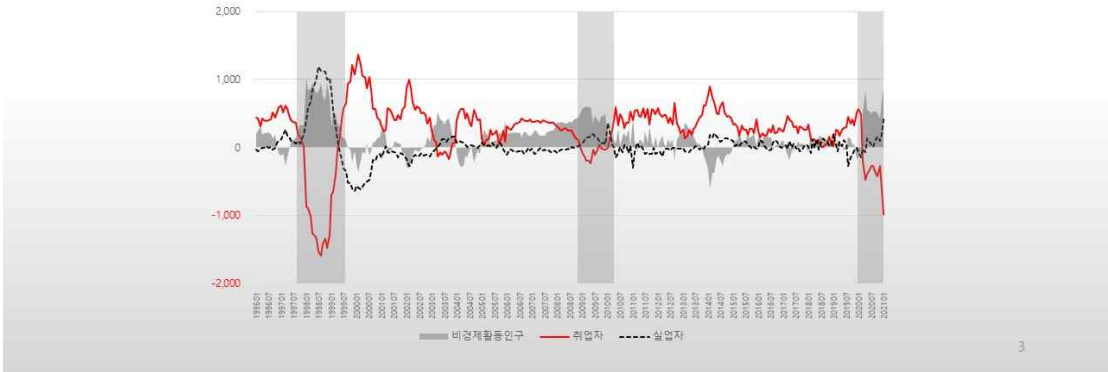
제5차 3시 STOP 여성파업 기념 토론회

순서

- 주요 고용 지표와 보조 지표 추이
- 한국 노동시장 현황(주요 지표 종합)
- 부문별 한국 노동시장 변동 현황

주요 고용 지표 추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2019년 대비 2020년 취업자 수 -218천 명, 실업자 +44천 명, 비경활 +455천 명
- 전년동월 대비 2021년 1월 취업자 수 -982천 명, 실업자 +417천 명, 비경활 +867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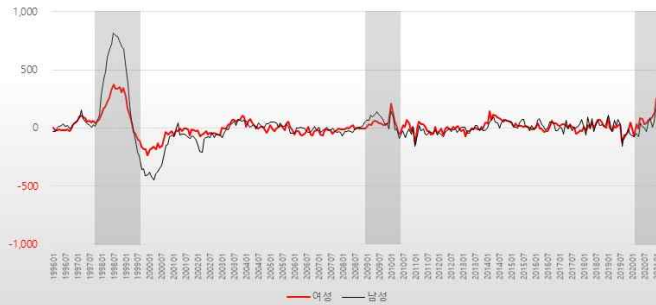
주요 고용 지표 추이: 취업자 증감

- 외환위기 때 여성과 남성의 취업자 감소폭은 비슷한 규모
- 외환위기 후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최근까지, 위기시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



주요 고용 지표 추이: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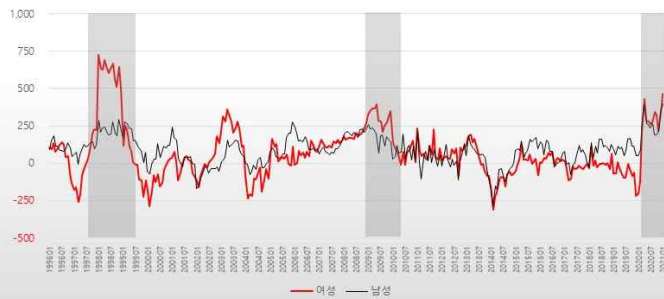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후 여성의 실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 상이



5

주요 고용 지표 추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코로나19 확산 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
-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으나, 비경제활동 증가폭은 남성과 비슷한 수준



6

주요 고용 지표 추이: 한국 노동시장 현황1

• 2020년 1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11,476천 명 (여성 비중 42.8%) 남성 15,324천 명	여성 526천 명 (여성 비중 45.7%) 남성 626천 명	여성 10,689천 명 (여성 비중 64.0%) 남성 6,025천 명

• 2021년 1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10,879천 명 (여성 비중 42.1%) 남성 14,939천 명	여성 781천 명 (여성 비중 49.7%) 남성 789천 명	여성 11,166천 명 (여성 비중 63.5%) 남성 6,424천 명

7

고용 보조 지표 추이: 2019년 대비 2020년의 확장 실업률 변화

-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1,2,3의 전년 대비 2020년 증감 규모는 모두 여성이 남성을 상회
-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1은 2019년에 남성이 더 높았으나 2020년에 여성이 추월

	여성			남성		
	수	증감	증감률	수	증감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12,007	-90	-0.7	16,005	-84	-0.5
실업자	484	47	10.8	624	-3	-0.4
실업률(%)	4.0	0.4		3.9	0.0	
시간관련취가취업가능자	483	158	48.7	605	180	42.3
고용보조지표1(%)	8.1	1.8		7.7	1.1	
잠재취업가능자	35	4	13.0	30	1	2.6
잠재구직자	831	74	9.7	977	91	10.3
고용보조지표2(%)	10.5	1.0		9.6	0.5	
고용보조지표3(%)	14.2	2.2		13.1	1.6	

8

고용 보조 지표 추이: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증감 및 고용보조지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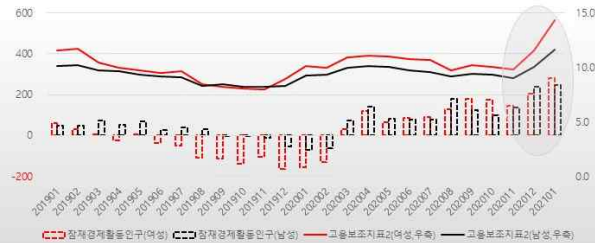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x100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즉시 증가
- 고용보조지표1은 2020년 4/4분기 들어 특히 여성에서 더 큰 폭의 상승세



9

고용 보조 지표 추이: 잠재경제활동인구 증감 및 고용보조지표2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포괄
- 고용보조지표2=(잠재경제활동인구+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x100
-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고용보조지표2의 추세도 고용보조지표1과 마찬가지로 2020년 4/4분기 들어 악화
- 고용보조지표의 성별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음



10

고용 보조 지표 추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구분과 증감

-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주간 취업을 희망하며 가능한 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의 기여가 훨씬 큼
- 2021년 4/4분기부터 잠재취업가능자는 감소하고 잠재구직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



11

고용 보조 지표 추이: 고용보조지표3과 생산가능인구 중 '확장실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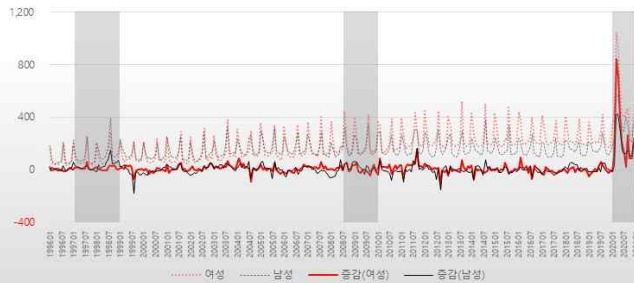
-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x100
-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2와 3은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 코로나19 국면에서 여성 중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 더불어 취업하고자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확장실업' 비중이 남성보다 더 급격히 증가



12

불완전 취업 추이: 일시휴직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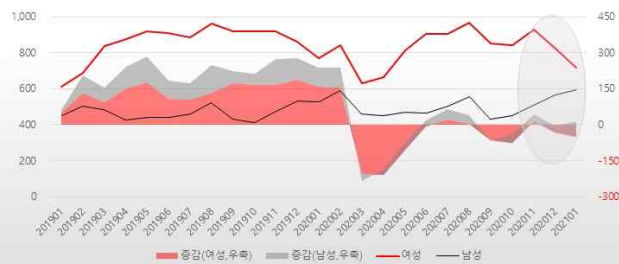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후 일시휴직자가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음
- 일시적인 상황으로서 해소되리라는 긍정적 기대로 2020년 상반기에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실업자나 비경활로 전환되고 있다고 추정됨



13

불완전 취업 추이: 초단시간 취업자 증감

- 2020년 3월을 제외하고 초단시간 취업자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만 감소
- *주된 일자리*에서 1-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의 감소는 초단시간 일자리의 산업/직업 편중 및 일자리의 취약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14

주요 고용 지표 및 보조 지표 종합(여성):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2

- 생산가능인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문은 잠재구직자와 실업자
- 노동시장 안과 밖의 경계 영역인 회색지대에서 여성은 728천 명(+3.2%) 증가

	취업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초단시간	초단시간(수)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합(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일시유직	일시유직자(수)				
(취업자)					(비경합동인구)			
2020년 1월(천 명)	10,138	219	86 9	683 339	526	38	726	9,924
(11,476)					(10,689)			
2021년 1월(천 명)	9,347	311	132 76	587 426	781	35	1,008	10,113
(10,879)					(11,156)			
증감(천 명)	-790	+92	+44 +66	-97 +87	+255	-3	+282	+188
(-597)					(+468)			

15

주요 고용 지표 및 보조 지표 종합(여성):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2

- 여성 생산가능인구 중 분포가 크게 늘어난 부문으로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 노동시장 경계 영역에 분포하는 여성은 생산가능인구의 11.6%에서 14.7%로 상승

	취업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초단시간	초단시간(수)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합(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일시유직	일시유직자(수)				
(취업자)					(비경합동인구)			
2020년 1월(%)	44.7	1.0	0.4 0.0	3.0 1.5	2.3	0.2	3.2	43.7
(50.6)					(47.1)			
2021년 1월(%)	41.0	1.4	0.6 0.3	2.6 1.9	3.4	0.2	4.4	44.3
(47.7)					(48.9)			
증감(%p)	-3.7	+1.1	+0.2 +0.3	-0.4 +0.4	1.1	-0.0	+1.2	+0.6
(-2.9)					(+1.8)			

16

주요 고용 지표 및 보조 지표 종합: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2

- 전년 동월 대비 2021년 1월에 남성은 여성보다 순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여성 비중은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에서 상승

	취업자(순)	시간관련수가취업 가능자(순)	시간관련수가취업 가능자/ 초단시간	초단시간(순)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제(순)	
			시간관련수가취업 가능자/ 일시유직	일시유직(순)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증감(천 명)	-772	+130	+43	+23	+153	-7	+252	+154	
			+71	+121					
			(-385)			(+399)			
여성 비중 (%)	40.9	41.9	49.1	56.1	49.7	65.9	46.5	65.8	
			46.0	58.6					
			(42.1)			(63.5)			
여성 비중 증감 (%p)	-0.6	-0.2	+0.6	-4.9	+4.1	+5.9	+2.1	-0.2	
			+12.0	-6.7					
			(-0.7)			(-0.5)			

17

경계 영역의 비경제활동인구: 주된 활동상태별 증감

- 지난 주 주된 활동상태별 2021년 1월의 비경제활동인구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증감
- 비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증가 부문은 여성은 '가사', 남성은 '쉬었음'
- 순 비경제활동 여성의 가장 큰 증가 부문도 '가사'

	여성						남성					
	수 (순)비경제활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증감 (순)비경제활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수 (순)비경제활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증감 (순)비경제활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육아	1,119	4	30	-57	2	8	8	1	1	4	1	0
가사	5,670	16	471	252	-2	138	148	1	34	24	0	15
정규교육기관 통학	1,578	3	29	-45	-0	21	1,706	3	32	25	-0	18
입시학원 통학	18	0	0	-5	0	0	14	0	0	-10	0	-2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29	2	82	3	-0	-6	30	1	77	-0	1	-11
취업준비	30	2	202	8	-1	13	45	3	302	5	1	66
진학준비	50	0	2	-12	0	1	76	0	6	3	0	-0
연로	990	0	10	37	-1	5	1,306	0	56	30	0	11
심신장애	156	0	2	0	0	2	290	0	2	20	-1	-1
군입대 대기							46	0	1	-5	-1	-1
쉬었음	392	7	177	45	-2	103	1,487	8	645	75	-7	165
기타	81	1	4	-39	1	-2	89	0	4	-17	-1	-7

18

경계 영역의 실업자: 이직 사유별 증감

- 최근 일자리에서 이직한 사유별 2020년 1월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 1년 이상 미취업한 장기 실업자의 경우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즉 비자발적 사유의 실업자가 크게 증가

	여성		남성	
	수	증감	수	증감
1년 이상 미취업	134	-9	170	10
개인, 가족관련 이유	59	-16	72	-7
육아	3	2		
가사	1	0	0	-1
심신장애	0	-1	1	1
장년퇴직, 연로	7	5	9	1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	62	-4	70	-15
직장의 휴업, 폐업	32	20	42	26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71	54	75	3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359	171	236	85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49	31	111	26
기타()	4	2	2	-2

19

경계 영역의 취업자: 취업자 연령대별 증감

- 전년 동월 대비 2021년 1월에 여성은 50대, 남성은 30대 '완전' 취업 부문 감소폭이 큼
- 주된 일자리가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취업자는 여성 중고령층, 남성 청년층에서 감소
- 일시휴직자도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

	취업자 수						여성 증감						남성 증감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146	3,496	5,245	6,244	6,204	4,483	-33	-100	-120	-118	-139	-88	-26	-155	-154	-92	-31	73
취업자(순)	87	3,104	4,823	5,737	5,515	3,604	-28	-150	-145	-178	-199	-91	-20	-161	-238	-169	-179	-5
시간관련추가취업가 능자(순)	4	86	98	163	243	147	-3	17	13	24	34	8	-2	6	29	29	62	5
시간관련/초단시간	6	43	31	58	70	62	2	13	7	16	5	1	2	2	6	3	15	15
초단시간 취업자(순)	44	175	84	102	155	486	-2	-1	-1	-10	-17	-67	-8	-18	16	7	15	11
시간관련/일시휴직	1	17	32	39	40	36	1	5	11	20	19	11	0	7	16	14	17	17
일시휴직자(순)	3	72	177	146	180	149	-3	17	-5	9	21	48	1	9	18	24	39	30

20

한국 노동시장 변동 현황: 생산가능인구 연령구간별 증감(여성)

- 연령구간별로 전년 동월 대비 2021년 1월에 30, 40대 '완전' 취업 부문이 가장 많이 감소
- 실업자와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 증가에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크게 기여

	취업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초단시간	초단시간(수)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제(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일시유직	일시유직자(수)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30세 미만	-178	+14	+14	-3	+30	+1	+82	-59
			+6	+14				
(-133)					(+25)			
30대, 40대	-323	+36	+23	-10	+38	+2	+79	-4
			+31	+4				
(-133)					(+25)			
50세 이상	-290	+42	+7	-84	+187	-6	+121	+252
			+30	+69				
(-226)					(+367)			

21

한국 노동시장 변동 현황: 생산가능인구 연령구간별 증감(여성)

- 여성 실업자 증가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40대까지 여성 완전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취업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초단시간	초단시간(수)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제(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일시유직	일시유직자(수)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대	-150	+17	+13	-1	+29	+1	+77	-9
			+5	+17				
(-100)					(+69)			
30대, 40대	-323	+36	+23	-10	+38	+2	+79	-4
			+31	+4				
(-133)					(+25)			
50~64세	-250	+38	+6	-10	+69	-3	+83	+184
			+26	+46				
(-145)					(+184)			

22

한국 노동시장 변동 현황: 생산가능인구 연령구간별 증감(남성)

- 5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증가하였는데, 여성 중고령자와 달리 초단시간 취업자가 증가
- 같은 연령구간의 여성과 달리 청년과 중년층에서 순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취업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초단시간	초단시간(수)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제(수)
			시간관련추가취업 가능자/ 일시유직	일시유직자(수)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30세 미만	-180	+4	+4	-26	+22	-2	+71	-9
			+7	+11				
(-182)					(+106)			
30대, 40대	-408	+59	+9	-23	+85	-4	+55	-9
			+30	+41				
(-245)					(+69)			
50세 이상	-184	+67	+30	+26	+56	-2	+116	+110
			+34	+69				
(+42)					(+224)			

23

주요 특징 정리

- 한국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지난 해 3월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지속
-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위기 지표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임을 가리킴
- 취업자 감소폭과 실업자 증가폭 등 여성이 남성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음
- 여성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기 때문
- 취업자 내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까지 고려한 고용보조지표3은 2020년 1월 현재 여성 14.2%, 남성 13.1%

24

주요 특징 정리

-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갖고 탐색하는 여성이 많은데 남성은 비경
활인구로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나
타남
- 취업자 내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활인구 중 잠재경제활
동인구를 노동시장의 경계 영역으로 정의하고 규모, 변화 확인
- 여성은 노동시장 밖의 경계 영역에서 더 크게 증가하고 남성은
노동시장 내 경계 영역에서 더 크게 증가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여성 +534천 명, 남성 +408천 명
 - ✓불완전 취업자 여성 +194천 명, 남성 388천 명

25

주요 특징 정리

-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고령층이 받은
영향이 상당히 큼
- 여성 실업자 증가폭의 70% 이상이 중고령층이며, 40대 이하에
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순 비경활은 오히려 감소
- 남성 중고령층에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40대 이하
에서 순 비경활 증가
- 노동시장 위협의 영향은 여성이나 남성에게서 모두 발견되지만,
노동시장 경계 영역에서도 여성은 바깥에 있을 확률이 높음

26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코로나 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코로나 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본 자료에는 아직 기관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은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사 인용 시 발표자와 꼭 협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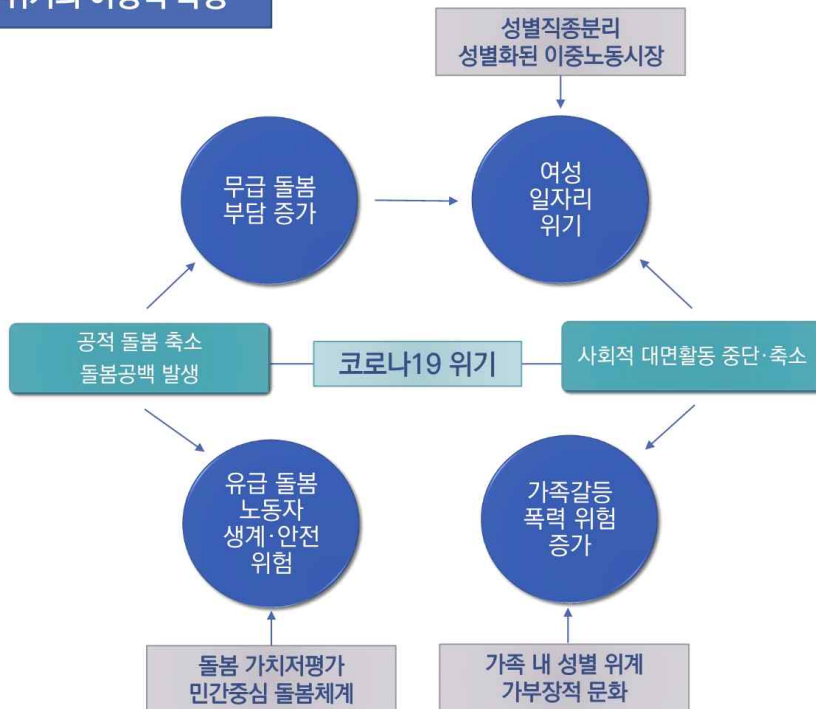
여성적 위기(She-cession), 남성적 회복(He-recovery)?

- 이전 경제위기와 다른 코로나 위기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었나
 - 이전 경제위기, 제조·건설부문 남성 일자리 타격 → 회복 초기 서비스부문 여성 저임금 일자리 확대 ... 현재는 반대의 양상 + 돌봄 위기라는 초유의 상황
- 기존 경제위기 대응에 최적화되었던 정책들이 적절히 개선되었나
 - 대기업 상용직 위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개입, 대규모 제조업의 고용위기 완화 수단이었던 고용유지지원정책의 개선 등
- 여성적 위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었나
 -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중장기 사회전환 전략의 성별 편향

여성적 위기(She-cession), 남성적 회복(He-covey) ?

- 이전 경제위기와 다른 코로나 위기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었나
 - 이전 경제위기, 제조·건설부문 남성 일자리 타격 → 회복 초기 서비스부문 여성 저임금 일자리 확대 ... 현재는 반대의 양상 + 돌봄 위기라는 초유의 상황
- 기존 경제위기 대응에 최적화되었던 정책들이 적절히 개선되었나
 - 대기업 상용직 위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개입, 대규모 제조업의 고용위기 완화 수단이었던 고용유지지원정책의 개선 등
- 여성적 위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었나
 -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중장기 사회전환 전략의 성별 편향

코로나 위기의 여성적 속성



여성 + 대면업종 + 임시·일용직 일자리 위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 → 여성 + 대면업종 +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성별 · 주요 산업별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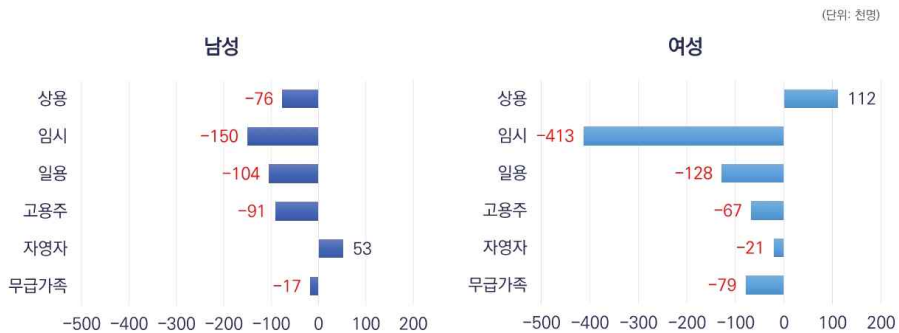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

5

여성 + 대면업종 + 임시·일용직 일자리 위기

- 특히 여성 임시직 감소폭이 매우 큼 ...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

성별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202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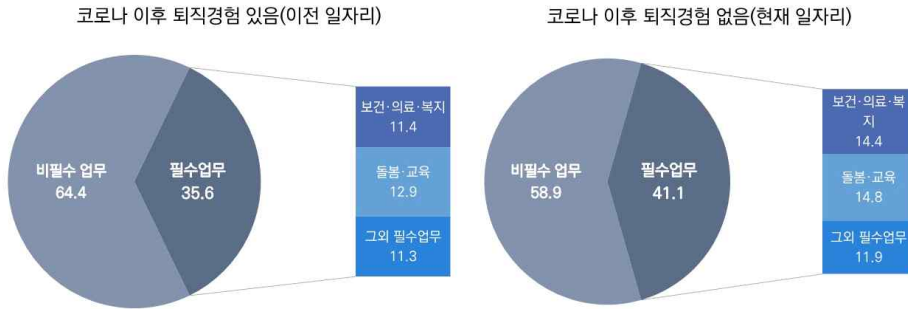
6

감염병 위기 일자리 불안정성 증가

- 비필수, 고대면, 재택근무 불가능 여성 일자리, 코로나 시기 퇴직자 더 많아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자의 퇴직경험 유무별 필수업무 해당 여부

(단위: %)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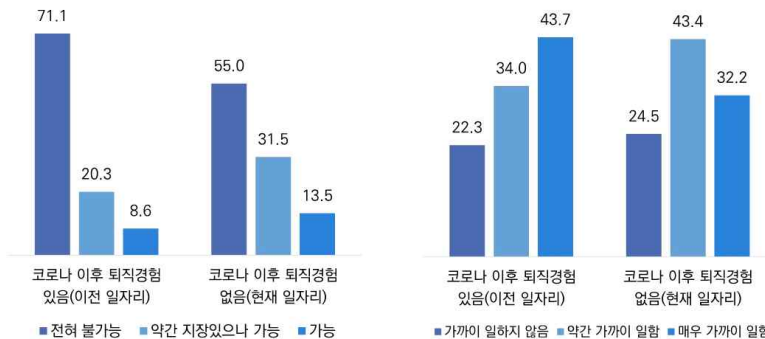
7

감염병 위기 일자리 불안정성 증가

- 비필수, 고대면, 재택근무 불가능 여성 일자리, 코로나 시기 퇴직자 더 많아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자의 퇴직경험 유무별 재택근무 가능여부(좌), 신체적 거리 정도(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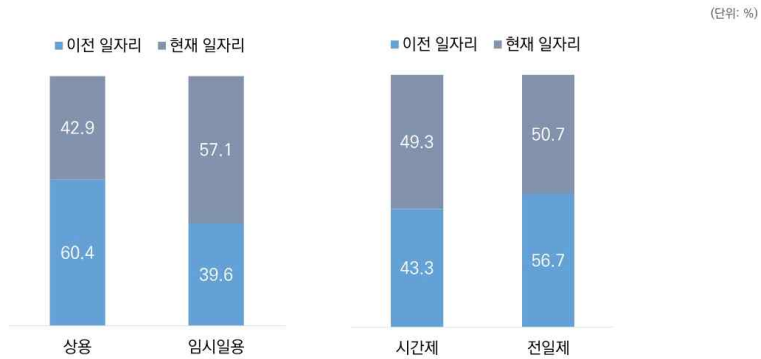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8

퇴직 후 재취업 여성 일자리 질 악화

- 코로나 시기 퇴직 여성, 상용직 → 임시·일용직, 전일제 → 시간제로 이동

코로나 시기 퇴직 후 재취업 여성의 이전/현재 일자리 특성(N=2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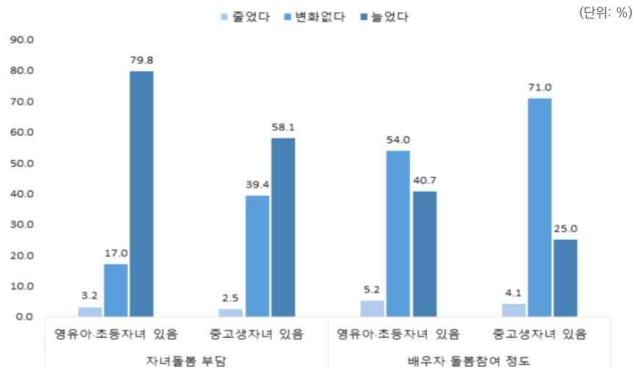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9

돌봄 재가족화에 따른 여성 부담 증가

- 여성 부담 늘었으나 배우자 돌봄 참여 증가폭 크지 않아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부담 및 배우자 돌봄 참여 정도 변화(유자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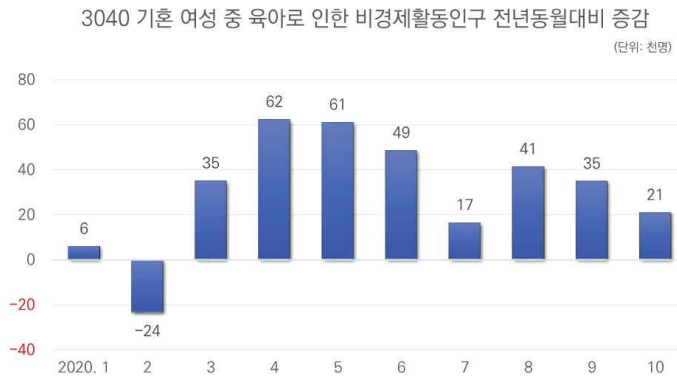


자료: 최유진 외, 2020. 2020년 성평등전략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10

돌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일자리 위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에 따라 3040 기혼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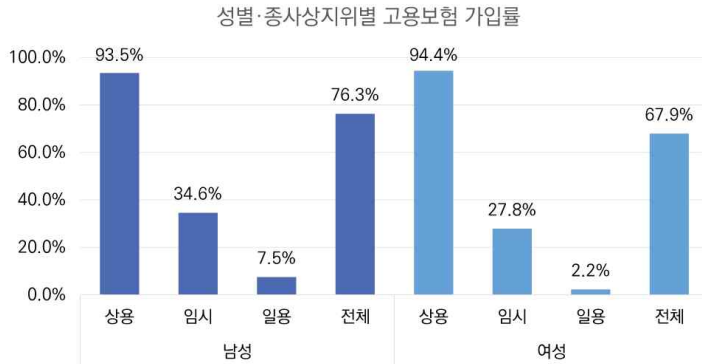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1

기존 경제위기 대응 정책, 적절히 개선되었나

주요 위기 집단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39.3%, 남성 43.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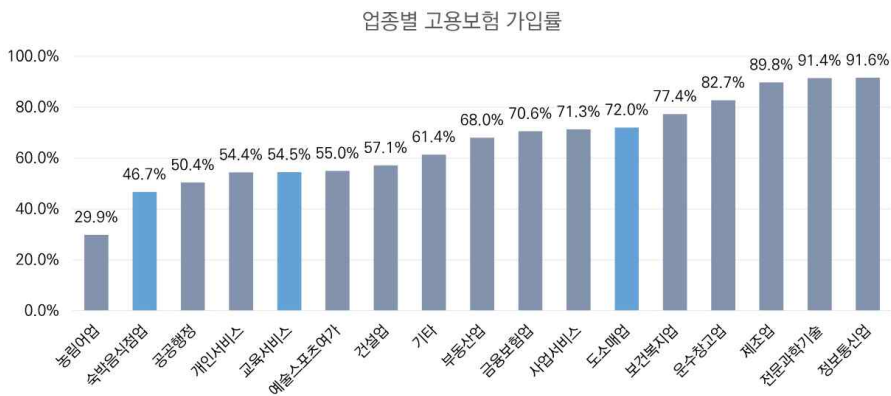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3

주요 위기 집단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 주요 대면업종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 특히 숙박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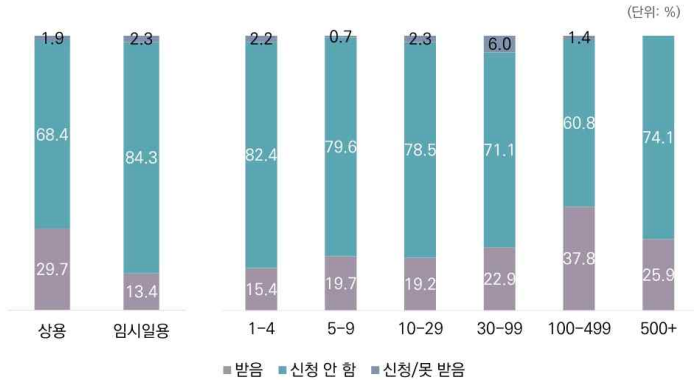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4

주요 위기 집단 실업급여 수급 저조

•코로나 시기 퇴직 여성 21.8%만 실업급여 수급 ... 임시·일용직, 소규모업체 더 저조

코로나 이후 퇴직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종사상지위별·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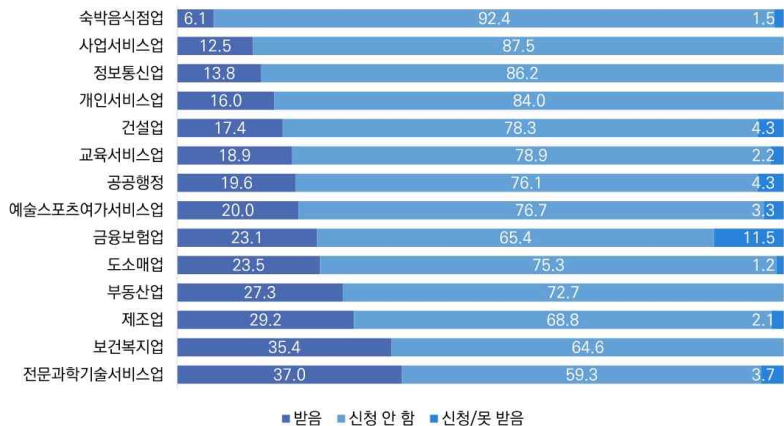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15

주요 위기 집단 실업급여 수급 저조

•업종별 수급률 편차 커 ... 숙박음식점업 퇴직자 6.1%만 실업급여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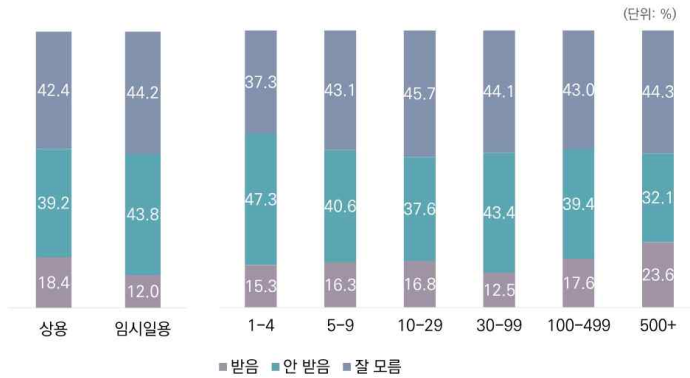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16

주요 위기 집단 고용유지지원제도 혜택 저조

• 고용보험 가입자 + 대기업 제조업의 휴업·휴직 지원에 최적화된 기존 제도의 한계 노출

코로나 이후 고용조정 유경험 여성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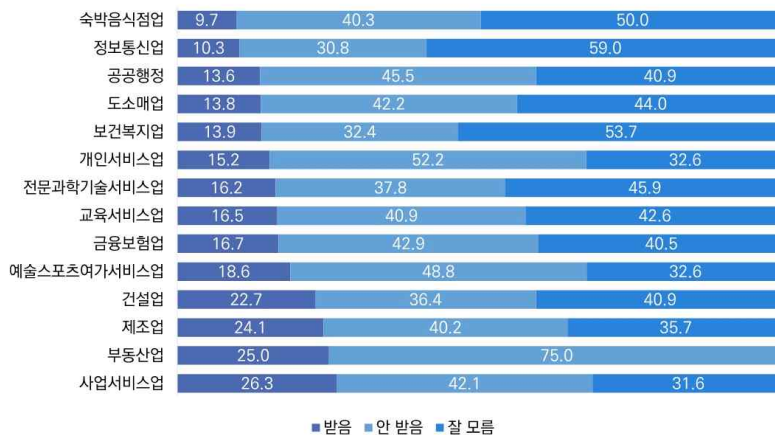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17

주요 위기 집단 고용유지지원제도 혜택 저조

• 업종별 수급률 편차 커 ... 숙박음식점업 고용조정 유경험 여성 9.7%만 지원 받아



자료: 김원정,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3호,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 대상 조사 자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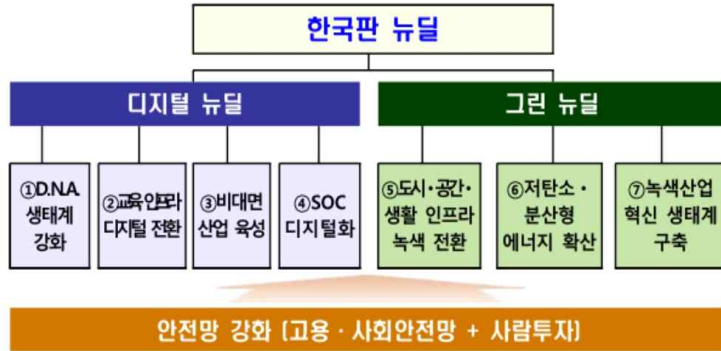
주요 위기 집단 피해회복 지원 미흡

- 남성집중 ‘기간산업’ 지원에 40조 조성
 - 기간산업안정기금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전통적 남성집중업종 지원
 - 활용률 저조(6%), 아시아나, 제주항공 외 지원 대상 없어(매일일보 2021.2.14.)
- 4차 추경예산안(2021.3.2.) 등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편중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280만명, 최대 500만원) 6.9조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80만명, 50/100만원) 0.5조
 - 법인택시기사 지원금(8만명, 70만원) 0.06조
 - 방문돌봄노동자 생계안정지원금(6만명, 50만원) 0.04조

19

여성적 위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He-covery에 집중된 중장기 회복 전략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1

He-covery에 집중된 중장기 회복 전략

- 한국판 뉴딜, 이전 경제위기 회복 전략의 다른 판본
 -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의 재원 투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 건설·토목부문 SOC 투자 → 디지털·녹색부문 SOC 투자, '신구' 남성 일자리 창출 위주
 - 비대면 경제·ICT 일자리 확대의 성별 영향 고려 없어
 -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 돌봄위기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자 부재

22

포스트 코로나, 성평등 사회전환 시작점되려면

• 위드 코로나 시기, 성인지적 위기 회복 지원 확대

- 여성 취약집단 일자리·소득 위기 회복에 보다 충분한 지원을
- 여성집중 대면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강화, 간접고용 등 수혜율 제고
- 늘어난 돌봄 부담 고려한 일·가족양립정책 활용 촉진
- 유급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보상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작

- 돌봄경제 투자 전략 수립 ... 공적 돌봄 인프라 개조·확충 + 돌봄 일자리 확대 + 돌
봄노동자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
- 고용·사회안전망의 성인지적 개조
- 성별 임금격차 및 직종분리 완화
- 일·가족양립에서의 성별·계층별 격차 완화

23

감사합니다

24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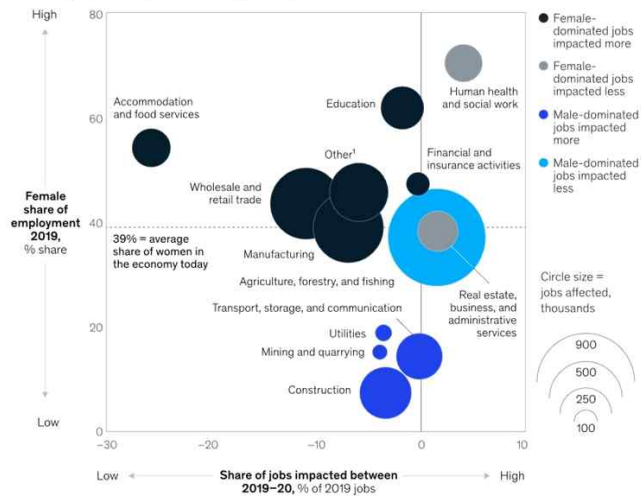
코로나19이후 성 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 이후 여성 삶의 변화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in industries that are expected to decline the most in 2020 due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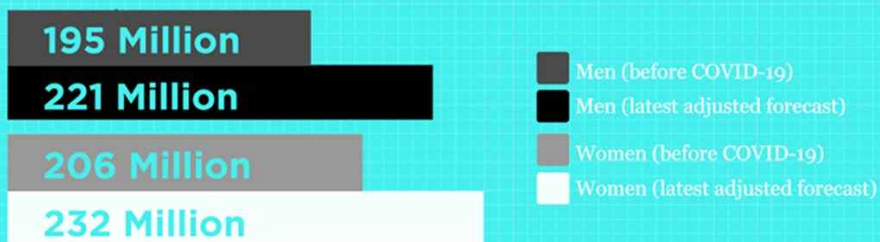
World employment impact in 2020 by industry



¹Includes arts and recrea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not elsewhere classified (SIC revision 4).
Sourc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cKinsey in partnership with Oxford Economics;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COVID-19 will contribute to the worsening of gender-poverty gaps.



Women and men living in poverty in 2030

SOURCE | UN Women, UNDP and the Frederick S. Pardee Center for International Futures
From Insights to Action: Gender Equality in the Wake of COVID-19

한국의 코로나 이전 상황은?

“젠더화된 과정(*gendered process*)”으로서의 아시아의 경제
기적 (Truong 1999)

- 경공업 수출주도 산업화 시기 저렴한 여성노동력
- 무급노동으로서의 노동력 재생산
- 여성의 비정규직화

재벌 중심 국가주도산업화 → 불충분한 고용창출

복지국가 미발달 → 돌봄노동의 여성 전가

코로나19와 한국 발전모델의 공통점

“돌봄”

그림자 노동

Wollstonecraft 딜레마



“여성은 돌봄 노동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한 남성과 같이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다”

돌봄체제

Care Regime

국가?

시장?

가족?

국가? - *No*

시장 (여성)



가족(여성)

노동체제 Work Regime

초장시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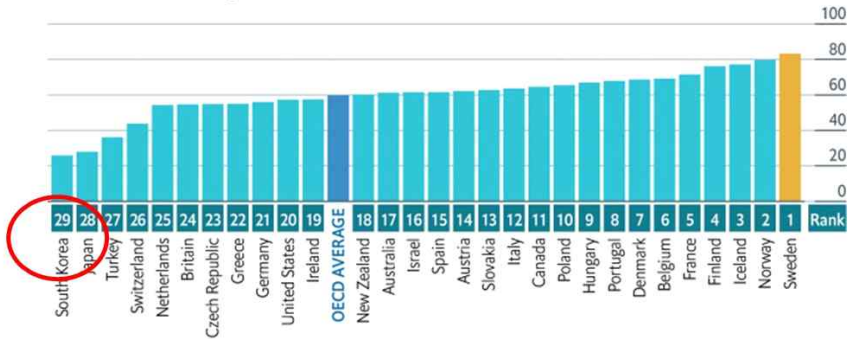
Purple Jobs

13

The Economist's 2019 Glass-ceiling Index

Glass-ceiling index

Environment for working women, 2018 or latest, 100=best



Sources: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urostat; GMAC; ILO; Inter-Parliamentary Union; OECD; national sources; *The Economist*

In the 2019 glass-ceiling index, Korea ranked last among 29 OECD member countries.
Source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9/03/08/the-glass-ceiling-index>

**돌봄체제와 노동체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젠더화된 노동시장에서의 돌봄 페널티

- “사회적으로 강요된 이타주의 ” (Folbre)
- 낮은 임금을 받는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인가?
- “love” 와 “money”의 혼동

한국의 돌봄체제와 노동체제: 유교적,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공적 돌봄체제의 부재
- 성별 직종분리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임금페널티가 불완전한 돌봄체제를 재생산



과연 대안은 없는가?

여성 및 환경 친화적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 코로나19로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
- 기존 금융권력의 집중화에 따라 새 기술을 개발하는 소규모 하이테크기업, 환경친화적 기업,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은 구조적인 과소투자 상태
- 노동, 환경, 여성친화적 투자기금 활성화(퀘백 노동연대기금 사례 참고)를 통해 사회적 책임투자 자본 확충 (ex. 성별 대표성이 확보되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 미세작업,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으로 많은 여성이 진출 중인 플랫폼 협동조합 운영 지원

성평등 패러다임이 장착된 복지국가 건설

Citizen-Worker-Carer Model
시민-노동자-돌봄인 모델

- Supiot (1999, 2001), "**Beyond Employment Model**"
- Standing (2008), Income and Representation Security

보편적 기본소득

상담사례로 보는 코로나19의 여성노동 현실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상담사례로 보는 코로나19의 여성노동 현실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크게 끼친 영향으로는 우려한 대로 해고와 돌봄의 심화이다. 이미 여성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 5년째 ‘3시스탑’을 외치고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진행하며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외쳤지만 성별임금격차 33.33%는 변함 없이 OECD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채용에서부터 임금, 승진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였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무던히도 싸웠지만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성노동자들을 한순간에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발제에서도 통계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및 돌봄노동의 강화등 성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토론자는 그 통계상의 수치속에 있는 코로나19속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국 여성노동자회는 11개 지부가 있고 각 지부에서는 ‘평등의 전화’를 운영하며 상담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토론문은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는 2020년 상담사례 중 코로나19 상담사례를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초기상담건수 4,010건 중 코로나19관련 상담은 총 210건이다. 전국 11개지역 중 대구, 경주, 부산지역 상담이 62.4%를 차지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내담자 연령으로는 50대가 40.1%, 근속년수 3년이하에서 62.1%를 차지했다. 중장년여성들과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비혼(15.4%)보다 기혼(84%)이 더 취약했으며 단순노무종사자가 30.4%로 표준직업분류별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는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이 34.5%, 30.8, 34.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를 차지한 서비스 종사자는 24%의 상담건수를 나타냈고 그 중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9.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9.8%,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0.7%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관련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담분포를 보면 어느 곳의, 어떤 여성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사례별로 근로조건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부)성권 상담, 고용평등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순이다.

코로나19와 근로조건상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하고 노동자에게는 연차사용을 강요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상담사례가 많았다.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부족과 두려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무급휴업을 하거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보다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업무관련 지시를 분명하게 요구하자 계약서에도 없던 수습기간을 내세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들이미는가 하면 코로나 확산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2주간 출근하지 말라하더니 사직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평소 회사와의 관계가 재난시기 부당행위 빌미로 작용하는 사례들이다.

코로나19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되면서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 실시하자 그와 관련한 상담도 많았다. 하지만 10일만으론 돌봄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없었다.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무급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고 코로나로 아이 입학시기가 미뤄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사례, 코로나19로 보육시간이 짧아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사례, 반대로 육아휴직 후 복직을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회사경영이 악화되었다며 육아휴직을 연장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고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적돌봄 영역이 없어지자 돌봄은 여성들에게 가중되었고 그것은 곧 노동현장에서 일하기 힘든,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안됐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사업수익이 떨어지자 여성노동자에게 욕을 하며 컵을 던져 깨뜨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했고, 그로 인해 문제제기를 하면 싫으면 그만 두라는 말을 내뱉는다.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고 야시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휴장이 되자 남자 계약직은 다른 업무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일을 주었지만 여성 계약직은 무급휴직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상담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무가

입 사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특수고용직이어서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관리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악화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해고로 이어졌고 취약한 계층에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저임금을 받으며, 서비스 노동에 집중된 여성노동자들은 더 큰 실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 내 무급 노동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성별분업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공적영역으로 가던 돌봄은 공적영역들이 폐쇄되기 시작하자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고 여성의 몫으로 늘어났다. 육아돌봄, 가사돌봄, 노인돌봄 등 가족돌봄이 개인에게 그것도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노동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차별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성차별은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속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실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되고 있고 대안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다. 이주희선생님의 발제에서 문제제기 하셨듯이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서는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이나 돌봄위기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자가 부재하고 남성 일자리 창출 위주로 되어 있다. 이주희 선생님과 김원정선생님이 제안하신 대안들에 적극 찬성하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때다.

재난을 넘어 연대로 코로나19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

하윤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재난을 넘어 연대로

코로나19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

하윤정(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1.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 위기의 모습들 :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 국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 된 것은 2월 말 대구 신천지 발 집단 감염부터였음.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공공운수노조가 코로나19 본격화 이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성명/보도자료에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 함.
- 2020년 2월 21일 의료연대본부를 시작으로 쿠팡배송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집배원 등 노조 산하조직 성명들이 잇달아 발표됨. 의료 현장, 대면 업무 직군부터 문제가 발생.
- 코로나19로 학교는 전에 없던 차별이 드러남. 교육공무직 노동자 중 방학 중 비근무 직종들(대표적으로 급식 조리/실무사, 미화노동자)은 휴교조치로 인한 혼란(방학연장or 개학연기)으로 근무일수와 연임금 총액 손실, 미등교 개학의 복무 대책 등의 쟁점이 발생함. 상시직은 재택근무 등 정규직과의 복무차별이 발생함. 또한 긴급 돌봄 실시로 인해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의 혼란과 업무과중이 발생함. 교육공무직본부는 출근투쟁, 재택근무 실시요구, 특별 긴급돌봄수당 요구 등 대응 투쟁을 진행함.
- 요양보호사, 간병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요구(3/6).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함.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에서조차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되는데 수일이 걸림.
- 명지대는 중국 학생 두 명 생활관에 자가 격리 되자 용역업체에 휴업 통보 및 용역경비 미지급 알림. 청소노동자들 강제 무급휴직 위기(3/18)
- 쿠팡맨 사망(3/17)
- 간병노동자 사망(3/18) : ‘병원 직원도 아닌 간병노동자들에게 왜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나. 그렇게 치면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 3월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 실태 고발(3/17). 무급 및 연차사용 강요도 있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원장들이 페이백 요구 증가. 복지부 지침 위반 사항이었음에도 만연.

- 아시아나KO 정리해고(5/11) :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 승객수화물 하기와 객실청소 담당하는 재하청업체. 희망퇴직, 무기한 무급휴직 강제. 무급휴직 동의서명 않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예고 통보. 고용유지지원금 회사 부담을 지지 않음.
- 임금 구조의 문제 : 대한항공 유급 휴직중.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객실 승무원의 경우 코로나19 전에 비해 임금 삭감폭이 큼. 비행수당 때문. 코로나 전 시기 급여 기준으로 1/3 정도가 비행수당. 기본급이 적고 각종 수당이 많았던 임금 구조로 수입 감소 발생. 11월 승무원 극단적 선택.
-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더 많은 권리를 가진 노동자와 아닌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등 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위기의 양상도 달랐음. 위기의 양극화, 중층화.

2. 코로나19 노조의 대응

- 정부 대응의 부족함 지적 및 보완 : 고용노동부 마스크 지급 대상에 ‘간병노동자’가 제외되었을 때 노조의 대응
- 조직된 노동, 소수일지라도 조직되어 있을 때 재난 시기 노동자들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부의 대책, 지침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보육지부의페이백 실태 고발 등 공론화로 인한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마련 등)
-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 대응
- 연대 활동 :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비정규직 노조,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
- 근본적인 위기 원인 진단 및 대책 요구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설립 확대, 상병수당 요구 등 (9월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총회 개최)

3. 토론회를 준비하며 갖게 된 몇 가지 질문들

- 의사 파업(집단 행동)과 포항의료원 간호사 집단 퇴사 → 코로나19 한국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다면? : 프랑스 의료 종사자들 파업 시위, 정부의 예산·병상 삭감과 인력 부족에 항의하며 파업과 시위를 함.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영웅이 됐지만, 순교자가 되기는 거부한다” →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
- 코로나19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코로나19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승무원들 / 여성노동자 다수, 코로나19 타격 직종임에도 승무원의 목소리는 왜 없었을까?
- 재난지원금 보편 vs. 선별 논쟁,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 동네 분

식집 점심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는 어디로 갔을까?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알바 노동자 지원은? (알바노조,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기자회견)

- 조직된 노동이 미조직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가? - 조직된 소수의 큰 목소리와 미조직된 다수의 목소리 없음 (2019년 노동조합 전체 조직률 12.5% - 민간부분 10.0%, 공공부문 70.5% / 300명 이상 54.8%, 30명 미만 0.1%)

4. 나가며

-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 누릴 수 있어야
-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회적 요구, 투쟁 필요.
- 성평등한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성평등 사업 추진체계 변화 필요성 대두.
- 2021년 3월 8일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 '재난을 넘어 연대로'

불안정한 삶의 끝, 청년 여성 코로나19 시대 생존기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불안정한 삶의 끝, 청년 여성

코로나 19 시대 생존기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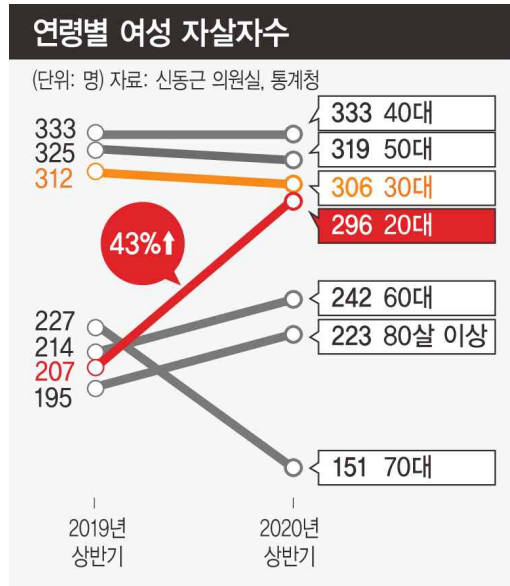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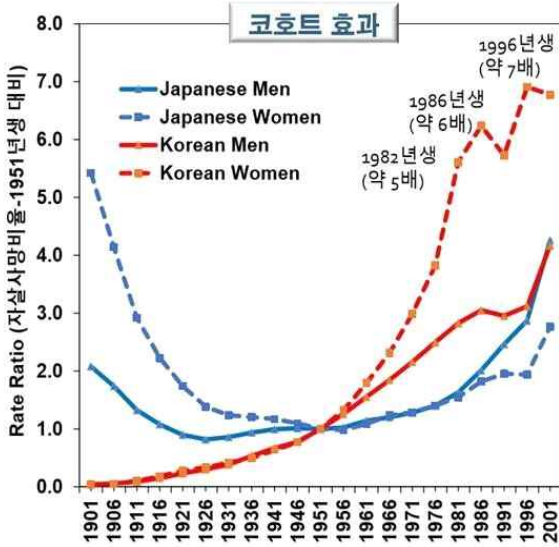
1. 코로나 19와 청년 여성의 모습들

1) 조용한 학살, 20대 청년 여성의 자살

‘이것은 또 다른 멸종저항’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멸종저항운동이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겠다는 청년세대의 의지를 나타낸다면 20대 여성의 집단 자살은 ‘출산 파업’처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는 않겠다’는 멸종선언처럼 들려왔다.

-누가 세계를 돌보는가 중(채효정 저)

-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율은 전년 대비 25.5% 증가.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은 전체 자살 시도자의 32.1%.
- 1951년 여성이 스무 살일 때 자살사망률을 1로 본다면 1997년생은 7배가 높음. 삶의 조건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자주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로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살률이 높았던 일본 전후세대에 비유되곤 함.
-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파악한 원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안전하지 않은 사회분위기.
-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성차별 등의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으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불평등이 병합되어 정신건강, 안녕, 행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장숙량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 1인 가구 대세화로 일상적 돌봄 및 지지관계 붕괴, 권위주의 잔재와 가족 내 직장 내 성차별 및 젠더폭력 등 불편한 사회구조에 여성들이 놓여있음. 또한 IMF 전후 세대로서 각자가 사회적 생존권을 쟁취해야하고, 비교적 남녀차별을 덜 받고 자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남녀 차별과 젠더 폭력에 더 큰 위협을 느낌, 코로나 발생 이후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들이 1차적 퇴출 위기에 놓임. (이현정 서울대 인류학과)



2) 일상적 고용차별,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 청년 여성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3417원으로 남성 노동자 임금(2만 35566원)의 69.4% 수준. 2019년 8월 기준 여성 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45%가 비정규직. 이 비중은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 과거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은 아직 선부른 판단. 전 연령 중 15-29세 남녀의 임금 격차가 가장 적긴 하나 이 연령대 여성은 교육연수, 직업교육훈련 기간, 근속 연수 등이 남성보다 길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은 이를 “설명되지 않는 차별”, “청년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에 놓여있는 현실”이라 표현함.
- 코로나 이후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데는 숙박음식업과 교육 서비스업, 시설 관리업 등 고용이 급감했기 때문. 20대는 상당수가 숙박, 요식업, 교육서비스업에 종사. 20대 여성 고용률이 1.7%p 낮아짐. (20대 남성 취업자 0.2%p 증가) 이는 여성이 소규모 사업장 종사 비율이 높고 일용직,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 쉽게 휴직이나 해고로 몰렸기 때문. 20대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체로 일찍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감소는 일반적이지 않음.

< 고용률 추이 >

	'19. 2월	'19.11월	12월	'20. 1월	2월
고용률(%)	59.4	61.7	60.8	60.0	60.0
· 15~64세(OECD비교기준)	65.8	67.4	67.1	66.7	66.3
· 15~29세(청년층)	42.9	44.3	43.8	44.0	42.9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26.3	33.1	51.6	56.8	49.2
· 15~64세(OECD비교기준)	0.0	8.9	20.8	24.1	10.7
· 15~29세(청년층)	2.1	6.3	6.9	6.5	-4.9
인 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29.0	34.1	34.5	34.7	31.6
· 15~64세(OECD비교기준)	-1.9	-2.3	-3.1	-4.3	-8.6
· 15~29세(청년층)	-10.3	-8.7	-8.7	-8.8	-11.5

3) 안전하지 않은 사회, 직장, 가정, 공동체

- 2018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20대 여성 비율은 79.6%. 반면 20대 남성은 30.2% 이에 전문가들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2019년 n번방 사건이 있었기에 20대 여성들에겐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게 인지된 상황”이라 답변.
-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 살인은 증가 중. (19년 5만 3200건으로 15년에 비해 16.4% 증가)
- 19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7년에 비해 41.1% 증가.
- 18년 불법촬영 피해자 중 여성 비율 82.9%, 검거 인원 중 남성 비율 96.6%.
- 19년 여성긴급전화 상담 중 데이트 폭력 증가율 713%(14년에 비해) 이어 가정폭력 50.4%, 성매매 35%, 성폭력 22.1%.
- 18년 여가부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중 3명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함. 여성,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음.

2. 청년 여성을 위한 정책?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0대 위기 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꾸려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제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관리하기로 함. 또한 새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 가족 지원 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을 연계해 여성 자살 예방 상담을 강화하기로 함. 더불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만 12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방문 돌봄 서비스인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계획.

- 여가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이나 프리랜서 등을 관심 갖고 발굴하여 이들에게 맞는 직업 훈련과정을 만들 계획을 예고함.
-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자살 예방 교육을 연간 6시간으로 확대,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 의무화. 사회적 영향이 큰 연예인 자살예방 대책도 마련. 민관협업체 신설하여 연예인 매니저 대상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하기로 함.
- 정부는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앱 이용, 상시적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게하고 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할 때 한번’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
- 여전히 정부는 청년 여성의 문제를 구조적/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개인적 예방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개인적 역량 강화 및 교육과 상담에 주력함. 또한 정부가 제안하는 서비스 역시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 위탁 서비스로 책임을 돌려 그간 가져 왔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큼.

3. 나가며

- 1) 청년여성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점을 복합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음. (아직 언어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 않다고 봄) 즉 현 정부의 “청년정책”으로도 “여성정책”으로도 묶이지 않은 청년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상황들이 존재함.
- 2) 미진한 정부정책. 청년 여성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ex) 일-가정 양립 정책/자살 예방 교육 확대/개인역량지원 제도)
- 3) 대안이 부재한 현실 속 청년 여성들은 개인화/파편화 되어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감.

젠더불평등한 재난 사회 변혁의 계기로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젠더불평등한 재난 사회 변혁의 계기로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재난은 여성에게 이중의 위협

- 보건의료 시스템, 노동 시장,
돌봄 부담, 가족 내 위치 등에서
여성들은 이미 불평등

학교와 돌봄시설을 열어라

- 등교 제한의 방역 효과 미약
- 아동 청소년의 학력 격차 심화
- 여성(엄마, 할머니)의 돌봄 부담 과중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_1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 가구 단위 사회보장의 가부장성
- 여성, 청소년 등은 필히 소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_2

선별이 아닌 모두에게

- 자영업 중심 지원의 한계
- 손실의 정도에 따른 선별 불가능
- 비가시화된 여성의 피해

소득 기반 전 국민 사회보험

-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뿐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을
'자격' 기준 →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그린뉴딜_1

- 한계에 다다른 생태위기
- 인류의 환경 착취, 남성의 여성 착취, 제1세계의 제3세계 착취
→ 약탈적 자본주의

그린뉴딜_2

- 기후위기 대응,
돌봄과 재생산 중심 사회로 변화
성별불평등과 계급불평등 해소
- 탈탄소 생태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소득_1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가족임금체계 탈피
→ 새로운 소득 모델

기본소득_2

-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실현 촉진

“성차별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그 어떤 사유도 대안일 수 없다”

- 정희진

감사합니다